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94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28)붉은오름·물чат오름·물오름
물 머금은 오름 분화구에 비친 역사

입력 : 2004. 05.07. 14:27:12



물чат오름의 신비스러움은 오름 이름에서도 확인된다. 오름 이름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오창명 박사에 따르면, 물чат의 원래 어원은 '물잣'으로 그 이름은 분화구 안에 "물이 고여있고 그 주변에 돌이 잣(城)과 같이 둥그렇게 쌓여 있다고 해서 붙여졌거나 또는 오름 주변의 봉우리가 낭떠러지를 이루고 있다는 데서 붙여졌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또 다른 이름인 "검은오름은 일제

강점기의 지형도(1:25,000)에 표기된 이후에 사용된 것"으로, 본래의 이름이 아니라고 했다.

고문헌에는 물чат오름이 물잣오름(水城岳)이나 물잣오름(勿左叱岳)으로 표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앞서 해석한 '물잣'의 의미에 제대로 어울리는 한자어다. 그리고 보면, 두 한자어는 옛 선인들의 자연관이 잘 반영된 이름이 아닌가 생각된다.

화구륜을 따라 반쯤 돌고는 물이 고여있는 분화구 안으로 내려갔다. 오름 정상을 오른 후에 분화구에서 물을 만나는 기분은 아주 새로울 수밖에 없다. 지도상에서 보면, 물чат오름의 분화구는 거의 원형에 가까우나 정작 물이 고인 부분은 동서로 길쭉한 타원형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화구호에 담긴 물을 감상하다 보면, 산정호수라는 이미지 때문일까 호수의 형태가 원형인지 타원형인지조차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연스레 환성이 튀어나온다.

분화구 안쪽 북서사면의 한 지점에는 어른 4~5명 정도가 충분히 비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자연 암반의 '굴'이 자리잡고 있었다. 인공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해 보였다.

왜 이처럼 높은 오름 사면에 인공적인 공간이 자리잡고 있는지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로 제주 4·3 사건과 관련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즉, 제주 4·3 사건 당시 어느 일가족이 일시적인 피신처로 사용하기 위함이었거나 혹은 무장대가 은신처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이다. 바로 앞에는 물이 충분히 있고, 주변의 큰 나무들과 자연암반으로는 추위를 피할 수 있기에, 얼마든지 그럴만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탐사단에 동행한 한 여성이 바로 옆에서 녹슨 철모를 발견

해 냈다. 모두가 깜짝 놀랐지만 엄연한 사실이었다. 철모는 위로 솟은 머리 부분은 완전히 삭아서 없어지고, 둥그런 주변부만 녹슨 채 남아 있었다.

어떻든 녹슨 철모와 인공적인 공간과의 관계를 확실히 밝혀내려면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 더불어 물참오름에는 이외로 제주사람들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사진설명]물참오름 화구호. 거의 연중 물이 마르지 않는 천연의 산정호수로 물참오름의 신비스러움을 더해준다.

특별취재팀/ 한승철부장(기획특집부)

강시영·이윤형차장()

표성준(편집부)·강경민기자(사진부)

후원 : 한국언론재단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